

정부가 에이즈 사업 주도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회는 국내와 인접한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의 에이즈사업을 시찰하고 선진시스템을 배우고자, 지난 9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연수를 실시하였다. 그중 홍콩은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에이즈사업에 대한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었다.



이상은
서울시회 사무국장

홍콩은 사회주의 중국으로 1997년도에 반환되었지만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한 채 1국 2체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도시이다. 홍콩은 금융, 비즈니스, 관광, 쇼핑의 중심도시이며, 이동인구가 많은 아시아 최대의 국제도시로서 에이즈 전파 위험이 높은 환경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에이즈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남부지역과의 무비자 왕래가 가능해져서 에이즈 전파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홍콩의 에이즈 감염률은 0.1% 이하로 낮은 편이며, 1984년 첫 사례가 발생한 후, 7년 정도는 발생자 수가 적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 6월말 현재 총감염인은 2,116명으로 매년 200명 정도가 감염되고 있다. 누적 에이즈 환자 수는 641명, 주요 전파경로는 성접촉이 81%로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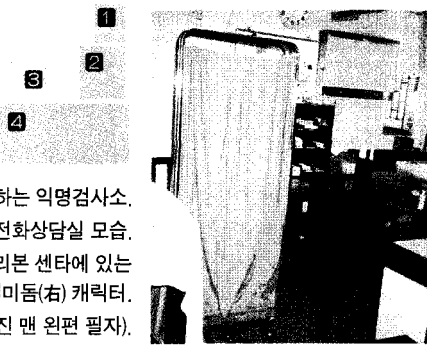
HIV통합치료센터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

1984년, 처음 HIV 감염인이 발생한 이래, 홍콩의 에이즈 예방사업은 정부 위생국의 SPP(special preventive program)를 통해 교육홍보, 감염인 인권복지, 치료, 검사, 조사연구 등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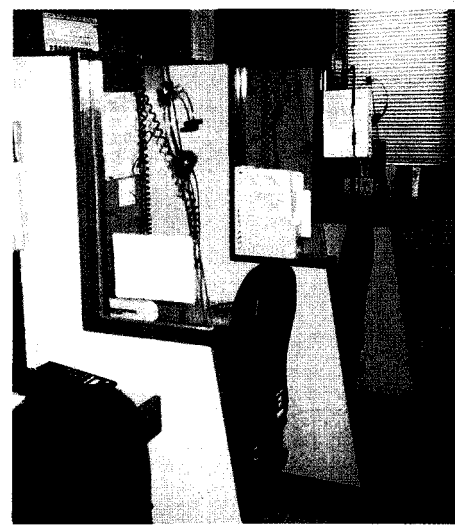
홍콩은 같은 중국어 문화권이면서도 영국의 장기간 통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치료센터가 있어서 HIV 감염인/에이즈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홍콩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1/90 크기로 에이즈에 대한 관리가 아주 용이하지만 최근에는 에이즈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남부지역과의 왕래가 비자 없이 가능해져서 에이즈 관리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대륙과의 연계협력, 상당 인프라 구축, 중국의 전문인력 훈련 등, 홍콩정부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은 북한과의 통일을 대비한 우리나라의 에이즈예방사업 모델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중국대륙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편전쟁의 역사적인 장소였던 홍콩은 정맥마약사용자가 6만명이 넘으면서도 오히려 IDU를 통한



- 1 홍콩정부가 운영하는 익명검사소.
- 2 익명검사소 내의 에이즈전화상담실 모습.
- 3 홍콩의 에이즈정보센터인 레드리본 센터에 있는 귀여운 콘돔(左)과 페미돔(右) 캐릭터.
- 4 홍콩NGO 단체와의 세미나(사진 맨 왼편 필자).



감염이 2.6% 정도로 낮아서 마약사용집단에 대한 사업이 효과적이다.

마약환자의 치료와 환자간의 주사기 공유율을 낮추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Harm Reduction 프로그램은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홍콩 내에 약 20여개소의 Methadone**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약사용자들의 주사기 공유율은 20% 정도이나 Methadone 클리닉 이용자 중의 공유율은 2% 이하로 낮고 이중 에이즈 감염인은 0.2% 정도이다.

어떤 NGO든 에이즈사업 펼칠 수 있어

홍콩의 HIV 감염인 치료 지원체계는 독특하다. HIV 치료제값은 종류에 관계없이 약제 하나당 10 HK\$ (1,650원)로 아주 저렴한 편이다. 세 가지 약제로 치료를 받을 경우 약 5,000원에 의사의 처방비 60 HK\$(10,000원)을 합쳐서 15,000원 가량의 돈이 든다. 처방기간이 1개월 이든 2개월이든 기간에 상관없이 값은 똑 같다. 홍콩의 1인당 GDP가 25,000 US\$ 인 점을 감안하면 정말 값싸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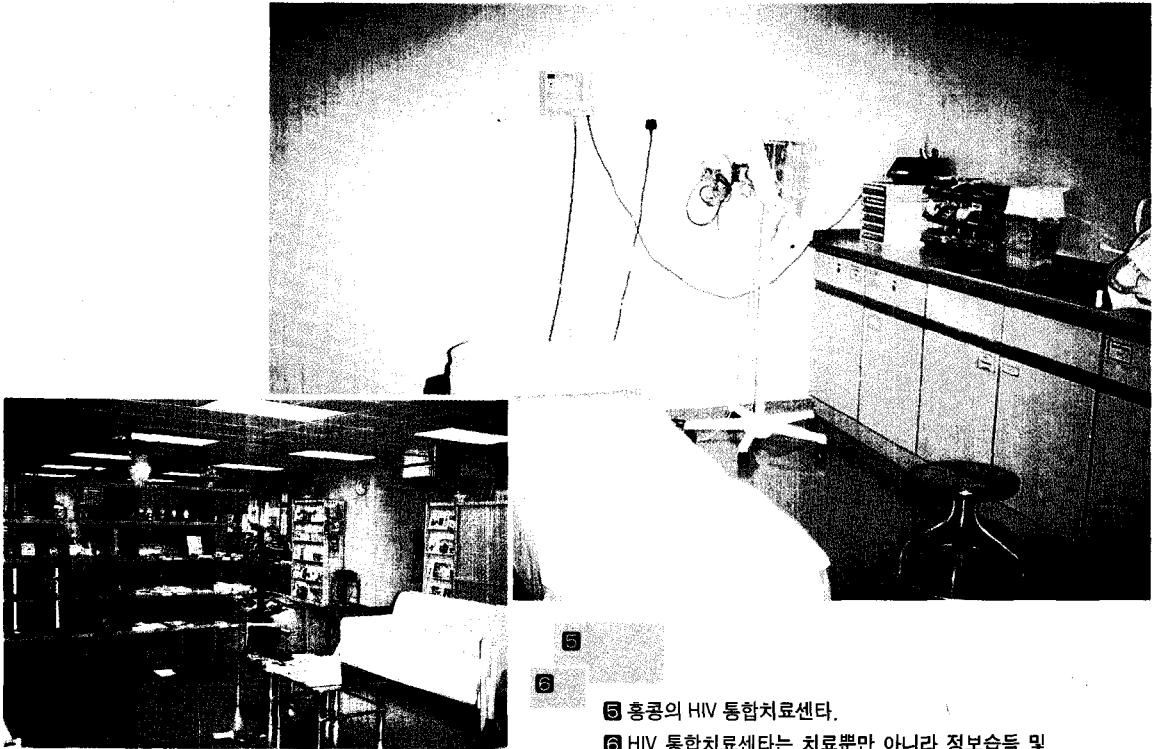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HIV 통합치료센터가 있어서 치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을 진료거부나 편견과 차별을 당함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점은 차별로 인한 진료거부가 심각한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합치료센터에는 진료실 외에도 휴게실과 정보실이 있어서 HIV 감염인을 위한 휴식실의 역할도 하고 있었고 감염인과 간호사들이 편집인이 되어서 직접 HIV 정보지인 "Red Ribbon" 이라는 월간 잡지도 만들고 있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에이즈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해서 홍콩에 NGO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홍콩정부가 적립한 에이즈신탁기금이 있고 홍콩에이즈예방재단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는데 에이즈 관련 NGO뿐만 아니라 어느 NGO든지 에이즈 관련 프로젝트를 내면 홍콩에이즈예방재단에서는 각 단체 간 업무를 조정 통합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한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NGO들의 사업 중복과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남북통일 대비한 에이즈사업 구상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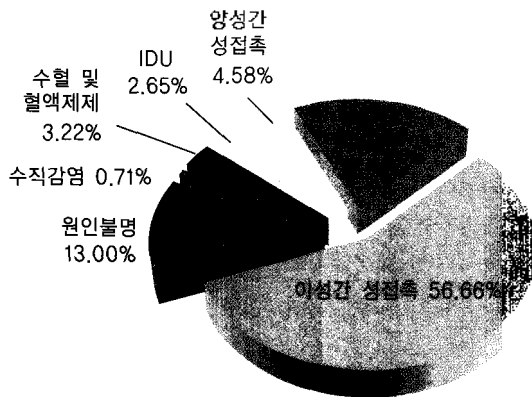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홍콩의 에이즈예방사업은 종합적이고 선진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국토 면적이 작으므로 정부가 강력하게 주도권을 행사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고위험계층이자 소외계층인 HIV 감염인, 마약사용자 등에 대한 사업이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면서도 이들로 인한 전파를 예방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홍콩의 에이즈 예방사업으로부터 우리나라도 에이즈 전문병원과 같은 정부의 시설투자나 에이즈예방기금의 적립, 마약사용자 대상 사업을 위한 Methadone의 도입 등에 대해 제고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남북통일시 에이즈가 심각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육로개통은 물론 인구이동, 이주노동자의 이동 등 에이즈 감염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은 관계로 이를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홍콩과 중국대륙의 연계사업 모델을 심분 활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㉟ 홍콩의 HIV 통합치료센터.

㉞ HIV 통합치료센터는 치료뿐만 아니라 정보습득 및 휴식의 공간.



홍콩 감염요인별 현황(2003년 6월말)

Methadone : 인조합성(synthetic) 마약으로 중독성이 코카인이나 헤로인에 비해 훨씬 적으면서도 마약중독자들이 경험하는 금단증상을 억제시켜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약제다. 약효는 헤로인이 4시간인 것에 비해 36시간으로 오랜 시간 지속되며, 부작용이 전혀 없는 마약의 하나로서, 홍콩에서는 Methadone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마약치료에 사용하고 있다.